



추모예배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추모의 의미

유교 문화에 깊게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와 은혜를 경험하며 약 1,000만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조상숭배와 제사 문제는 성경 말씀과 대치되는 가장 큰 장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에서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를 향한 ‘효(孝)’이며 ‘도리(道理)’입니다. 성경이 부모공경에 대해 가르치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효를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효와 공경을 가르치되 돌아가신 부모를 우상화하는 제사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추모예배라는 대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자리를 ‘추도(追悼)’ 혹은 ‘추모(追慕)’ 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도]는 ‘따를 추(追)’, ‘슬퍼할 도(悼)’ 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인을 생각할 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추모]는 ‘따를 추(追)’, ‘그리워할 모(慕)’ 혹은 ‘사모할 모(慕)’ 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죽은 이를 그리며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단어가 엄격하게 뜻을 다투며 사용하지는 않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부활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은 고인과의 잠깐 동안의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슬퍼하기 보다는 그리워하고 재회를 소망하고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서에는 더 잘 맞습니다.



2 추모예배의 목적

지구촌교회는 한국 전통에 따라 성도들이 설 명절과 추석 명절 가족이 모여 추모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절기마다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모예배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와 시간일까요?

1. 추모예배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관을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추모예배는 조상숭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며, 믿음의 가정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슬픔이 아닌 고인의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추모예배가 고인의 운명이나 사후 거취에 대해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독교의 추모예배는 부활의 약속과 복음적 소망을 가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2. 추모예배는 감사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있다면, 성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삶과 믿음을 상속받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왔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본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추모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천국이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의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추모예배는 믿음의 본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추모는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추모예배는 단순히 죽은 자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보다, 고인이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그리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매일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3 추모예배 방법

시간

고인이 돌아가신지 1주년이 되었을 때는 고인이 소천하시는 날에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때, 주일예배 혹은 공 예배 시간을 피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1년 이후로는 기일, 고인의 생일, 명절(설/추석)등 가정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특별히 명절 각 교회마다 진행되는 추모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참석자

가족뿐 아니라 고인과 함께 신앙 생활했던 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타 준비

고인의 사진이나 영상, 육성 녹음, 고인이 사용하시던 성경과 찬송가 등 고인의 생전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유품들이 있다면 준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건전하고 밝은 조명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 촛불이나 향은 피우지 않도록 합니다. 예배시간을 제사처럼 돌아가신 시간 또는 늦은 밤에 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음식은 예배 전에 차려놓지 말고 예배 후에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여 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추모예배 관련 자료

추모예배 찬송가

새찬송가 기준

찬송은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거나 좋아하셨던 찬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잘 알고 있는 찬송을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곳에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대표기도문

대표기도는 가족이나 고인과 친분이 깊으셨던 분 중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편안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과 감사, 신앙의 결단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구성하십시오.

예시 1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지낼 수 있도록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온 집안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구별된 마음으로 추모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신앙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되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죽음과 이별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소망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시 2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지금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추모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고인이 살아오셨던 믿음의 삶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바는, 추모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믿음과 선행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길 수 있게 하옵소서.
고인을 추모하는 가정의 모든 자손들이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고인이 평소에 못다 이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축복된 가정되게 하옵소서
부활이고 생명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설교 가이드

설교는 목회자가 있는 경우 목회자가, 없는 경우 가정의 연장자 혹은 믿음의 연장자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설교문이 포함된 안내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설교를 맡은 사람이 간단한 설교가 가능할 경우 편안하게 인도하셔도 좋습니다. 설교의 시간은 너무 길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설교자의 선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해드리는 성경의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묵상을 나누거나 평소 고인이 좋아하시던 성경을 함께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모예배 설교의 주제와 성경 본문의 예시

제목	본문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갈라디아서 3:26~29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1~6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1~3
본향을 사모하며	히브리서 11:14~16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3~5
약속의 땅을 향해	신명기 31:7~8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31
주의 이름을 부르라	로마서 10:10~13
죽은 자의 부활	고린도전서 15:42~44

참고문헌

성서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서울 : 대한성서공회, 2001)
단행본	김현택, 『잊을 수 없는 날들의 메시지』 (서울 : 쿼란출판사, 2011) 김학도, 『한국의 전통상제와 성경적 장례의식』 (서울 : 바른신앙사, 1991) 박종순 외, 『장례예식설교』 (서울 : 한국문서선교회, 2016) 보건사회부, 『가정의례해설』 (서울 : 보건사회부, 1973) 신성호, 『교회가 꼭 알아야할 장례 지침서 ; 존엄한 죽음』 (서울 : 요단출판사, 2018) 안옥현, 『기독교 장례예식의 길라잡이』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전형준, 『장례, 추모예배 이렇게 준비하라』 (서울 : 아가페북스, 2011) 조양제, 『관혼상제』 (서울 : 일신서적공사, 1984) 최정성, 『내가 준비하는 추도예배』 (서울 : 엘멘, 2012)
번역 문헌	Aries, Philippe. 『죽음의 역사』 이종민 역 (서울 : 동문선, 2002) Oden Thomas C. 『목회신학』 이기춘 역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95) White, James F.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장복, 조기연 역 (서울 :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0)
기타	인터넷 blog.naver.com/icefire73/ (한국장례문화)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전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2권 (서울 : 기독교문사, 1996) 정인찬, 『성경대백과사전』 제 2권 (서울 : 기독지혜사, 1998)